

日本の 大學 改革, 그 배경과 실제

康 永 富
(慶熙大 日語日文學科)

현재 우리에게서 대학 개혁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논의가 무성하지만,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보다 앞서 있으면서도 여러 면에서 우리 대학과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일본 대학의 최근 대학 개혁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대학 개혁 방향 설정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머리말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교육산업의 개방이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기사들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은 국내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둘러싸고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해 교육정책이 수없이 바뀌어온 지금까지의 것과는 달리, 국내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화된 사회에서 우리 대학이 다른 나라 대학과의 경쟁에서 과연 살아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지적되어온 것을 정리해 보면, 교육산업이 개방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 대학이 심각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

다. 하나는 우리나라 대학이 선진국 또는 다른 신흥공업국 나라들의 대학과 비교했을 때 교육 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서 교육산업이 개방되었을 경우에 자유경쟁에 적응치 못하는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2002년 이후에 대학 지원자수가 대학 정원에 못 미치게 되어 이를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는 점이다.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이 이렇게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획일화된 권위주의체제 아래에서 통제되어 왔던 대학행정과 대학 자체의 폐쇄적인 운영방식에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4년제 대학 중 74%나 되는 사학의 극심한 재정난도 그 주된 원인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있

다는 데 있다. 그래서 대학 개혁을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교육환경의 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으면서도 여러 면에서 우리 대학과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일본 대학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학 개혁의 내용을 소개·검토해 봄으로써, 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 개혁의 방향설정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日本의 대학 개혁

1) 大學 改革의 배경

일본 사회에 있어서, 암묵적이든 그렇지 않든, 지금까지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은 입학 시험의 偏差値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리고 산업계에서도 대학교육에 많은 기대를 걸지 않았고, 인물 본위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며, 오히려 대학교육의 장에서 물들지 못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제시해 오기까지 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여러 대학들이 지금까지의 대학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깨닫고, 교육 내용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대학의 교육에 관한 대변혁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1991년에 文部省이 발표한 고등교육에 관한 일련의 조치였다. 즉, 이전까지는 대학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문부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었던 것이, 文部大臣의 자문기관인 大學審議會가 고등교육의 계획적인 정비에 대한 답신을 발표하면서, 이를 계기로 각 대학의 독창성(originality)을 살릴 수 있도록 대학의 자주적인 판단으로 교육·연구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대학 설치 기준의 大綱化(‘대강’이란 細目과 반대되는 의미)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구태의연한 폐쇄적 상황이라는 것이 대학의 현상이어서, 이러한 상황이 일본의 대학 체질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대학 내에서는 ‘대학의 자치’라든가 ‘학문의 독립’이라는 말로, 커리큘럼의 변경이나 자

기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守舊派들이 많아, 이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改革派들은 차라리 새로운 대학(학부)을 만들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해서 여러 대학에서는 새로운 이념의 학부나 대학이 하나 둘씩 창설·개조되기 시작했다.

이상이 일본의 대학에서 교육 개혁이 일어나게 된 간략한 배경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개혁이라 해도 그 내용은 대학에 따라 가지각색이며, 독창성의 면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여러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학 개혁의 실례를 들어 사립대, 국립대의 순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2) 私立大學의 대학 개혁

일본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 개혁을 인식하게 된 배경에는 대학 설치기준의 대강화 외에 또 다른 필연성이 있었다. 그것은 倒産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본 대학심의회의 답신인 “또한 사학 경영에 관한 상담 체제에 더욱 충실하고, 만일 폐지의 위기에 처한 사학이 생겼을 경우 학생의 취급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방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1993년도 이후의 고등교육에 관한 계획적 정비에 대하여」)라는 내용에 시사되어 있다. 즉, 지금까지는 만약의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문부성이 어떻게든 해결해 줄 것이라는 암묵적인 양해가 있었지만, 이 답신이 발표되고 나서는 경영 노력을 하지 않는 사립대학은 문부성에 버티지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더욱이 불황의 영향으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학비, 하숙비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경향이 높아져 가고, 게다가 소위 내셔널 브랜드로 불리는 기업들이 채용을 극단적으로 감소시켜 수도권의 사립대생들이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지방에서는 건실한 채용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92년도부터 수험생의 흐름은 국·공립으로 되돌아가고 있고 지방으로 분산되기 시작했다. 93년도에는 지원자 수만 해도 국·공립대는 전년에 비해 9%가 증가한 데 대해 사립은 4%가 감소했다.

결국 일본의 사립대학들은 앞으로 소위 인기 있고 특색있는 대학을 만드는 자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개혁을 통해서 다른 대학보다 뛰어나고 독창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앞으로 다가올 국제 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어 취직 실적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것은 대학을 입학 시험의 편차치로 평가하고 선택하던 시대에서 교육으로 평가하고 선택하게 되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음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해석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일본의 사립대학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학 개혁을 단행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의 사립대학 중에서 대학 개혁을 단행한 대표적인 예로 게이오(慶應) 대학 후지사와(藤澤) 캠퍼스를 들 수 있다. 이 새로운 학부는 '오늘날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諸科學橫斷的이고 종합적인 시야에 선 연구를 행하고, 풍부한 발상으로 새로운 시야에서 문제를 포착하여 해결에 이끌어 가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면서, '인간의 선택·행동을 종합적으로 포착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연구'를 지향하는 '종합 정책 학부'와 '인간이나 다른 동·식물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환경의 정비와 창조'를 테마로 하는 '환경 정보 학부'를 설치해 놓고 있다. 이들 테마는 종래의 전문 영역에서는 취급할 수 없었던 분야였으며, 문과 계열과 이과 계열의 구분조차도 없어졌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최근의 사회적 요구에 맞게 모든 학생이 자연 언어(외국어)와 인공 언어(컴퓨터 언어)를 높은 수준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특히나 컴퓨터에 대해서는 누구나 프로그램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워드 스테이션(일반 컴퓨터보다도 고도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컴퓨터)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캠퍼스에는 입시 제도에서도 독특한 면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AO(Admissions Office)라는 제도이다. 이것은 자기 추천에 의한 입학 제도로서, 고등학교 성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면 누구나 면접에 의해서 입학 시험을 치를 수 있고, 게다가 1년에

4번 실시되고 있다. 이 시험에 응시하는 데에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사회인이나 귀국 자녀, 유학생에 대해서도 문을 넓히고 있다. 이 AO 입시는 대학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추천 입학에 대해서 억제책을 취하고 있는 문부성조차도 적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입시에 의해 입학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활발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독창력이 있으며, 대학 성적도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대학 개혁을 단행한 또 다른 사립대학으로서 중앙 대학이 있다. 이 중앙 대학은 舊來型 교육의 한계를 타파한다는 이념 아래 1993년도에 중앙 대학 '종합 정책 학부'를 탄생시켰다. 이 곳에서의 교육 내용은 정보교육(컴퓨터에 의한 정보통신), 정책과학(정치학, 경제학, 법률학의 종합적인 학습), 문화과학(국제적인 범위에서 걸친 文化事象의 이해), 외국어교육의 네기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외국어교육에 있어서는 舊來의 어학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여러 나라 사람과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티브 미디어(communitive media)로서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학 교육은 아직 일본에 없는 분야의 서적을 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종래의 다른 대학들이 '學際的' 또는 '학문의 울타리'라는 말을 쓰는 데 비해, 이 학부에서는 멀티플 디시플린(multiple discipline), 즉 여러 분야의 시점으로부터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법률, 정치, 경제가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이미 구래적인 수요·공급 곡선으로는 실체경제를 설명할 수 없게 되어 있듯이 지금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문은 한계에 와 있으며, 윤리적인 사고의 기반을 갖고, 그것을 여러 가지 분야의 시점에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關西地方의 개혁파라 불리는 리쓰메이칸(立命館) 대학이 있다. 이 대학의 경우, 全國橫斷入試 제도를 만들어 전국 13개소에서

입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1~2회생의 수업의 소수인원화, 부전공제도의 도입, 나아가서는 학생에 대한 재단의 재정 공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시도를 하는 한편, 94년도에 이공 학부의 비와코(琵琶湖)·구사쓰(草津) 캠퍼스 이전에 의한 대폭적인 확충·기조를 비롯해서 이공 학부 공터를 이용한 정책과학부 설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 정책과학부도 종래 학부 편성의 문제점을 답습한 것으로서 일반 교육과 전문 교육의 구분을 철폐하고 리버럴 아트(liberal art)를 중시한 종합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종래의 학부 교육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 간사이(關西) 대학도 내년에 文理總合型的의 종합 정보학부를, 간사이가쿠인(關西學院) 대학도 95년에 신 캠퍼스에 종합 정책 학부를 개설할 예정이어서 사립대학의 교육 개혁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3) 國立大學의 대학 개혁

사립대학과는 달리 경영 파탄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대학 설치 기준의 대강화는 일본의 국립대학에도 개혁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의 국립대학에서는 최근에 教養部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여 작년에는 5개 대학이 폐지되었고, 올해는 6개 대학에서 폐지된다.

대강화 이전에는 외국어 과목, 보건체육 과목, 일반교육 과목, 전문교육 과목으로 분류된 과목별로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수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대강화 이후에는 전체의 학점수만이 정해지고, 과목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재량에 맡겨지게 됨으로써 종래의 커리큘럼에서 4년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살린 커리큘럼으로 이행할 것을 검토·실시하는 대학이 잇달아 늘어나고 있다.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대학에 있어서 교양부의 개혁은 오래전부터 과제로 남겨져 왔다. 원래 교양부라고 하는 것은 1948~49년의 新制大學 발족시에 그때까지의 전문가 양성 학교로서의 요소가 강했던 대학을, '교양 있는 시민'의 양성 기관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었다. 전공을 막론하고 그에 맞는 폭 넓은 교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 사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종래의 일반 교양은 전문 교육에 오르기 위한 通過期間化되고, 학생은 학점만 따면 된다는 식으로 공부를 안 하게 되어 본래 고매한 이상에서 출발했었을 일반 교양이, 학부간의 이기심에 의해 空洞化되어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교양부 폐지의 선두를 끊은 것은 고베(神戸) 대학과 교토(京都) 대학이며, 둘 다 1992년 9월말에 폐지시켰다.

우선 고베 대학의 경우는 교양부를 폐지해서 '국제 문화 학부'를 창설하고, 교육 학부를 '발달 과학부'로 개조했다. 그리고 교육 학부의 학생 정원을 두 학부에 배치해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개혁을 이루어냈다. 또한 일반교육에 대체되는 폭 넓은 교양을 익히게 하는 과목은 '교양 원론'이라고 명칭을 바꾸어 2, 3학년 때에 배우게 하고, 1학년에는 각 학부의 학부장 클래스 교원에 의한 모티베이션(motivation)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양 원론은 인문, 사회, 자연의 세 범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소속되어 있는 학부가 기초부터 빈틈없이 책임을 지고 개통적으로 가르치고, 자기 전공 이외의 두 범주만을 습득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교양 원론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은 철학이나 선형대수와 같은 개별 학문별로는 실장하지 않고 '인간과 사회', '자연과 환경'이라는 커다란 테마별로 만들어 놓고 있다. 여기에는 각 코스를 구성구석까지 수강하게 함으로써 현대 사회에 필요한 충분한 교양을 갖추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한편, 국제 문화 학부의 경우는 국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영어와 컴퓨터를 원하는 대로 구사하고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부의 전 학생에게 구사할 수 있는 영어력, 소프트웨어를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異文化 이해의 기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교토 대학의 경우는 '종합 인간 학부'가 있다. 이 학부 최대의 특징은 이학계와 문과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학부도 앞의 고베 대학의 경우처럼 구 교양 학부의 교원을 중심으로 현재의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해결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설립되었다. 이 곳에서는 이과를 이해할 수 있는 문과계, 문과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과계를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지금까지 전문 학부의 교육이 각 전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인데 대해, 이 종합 학부의 교육은 문명과 사회 전체를 내다 보고, 새로운 문화 수준을 창출하여 개인에게 진정한 삶의 보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위의 방향을 탐구하는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데 큰 특징이 있다.

3.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학 개혁 운동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알아 보고 그 실제적인 예를 사립대학의 경우와 국립대학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이것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대학 교육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① 국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개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② 외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 ③ 교양부를 없애고, 4년간의 커리큘럼을 좀더 체계적으로 짜고 있다.
- ④ 문과계와 이과계의 울타리를 없애고, 종합적인 시야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⑤ 일반 입시와는 다른 입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의 교육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관련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문부성의 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大綱化
- ② 사립대학에 있어서의 倒産의 현실화
- ③ 교양부의 空洞化
- ④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내용

이 네 가지 요인들 중에서 대학교육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학교의 설치·운영을 각 대학의 자주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문부성의 조치였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대학 개혁의 내용과 그 배경에서 주의해 보아야 할 점은, 일본의 각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교육 개혁은 전면적인 개혁이 아니라 신설 학부와 교양부의 개조 등에 의해 극히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성을 지키고 있는 여러 대학(학부)까지도 이러한 개혁의 물결에 동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개혁에 의해 탄생한 학부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이고,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며,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거론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빠른 속도로 국제화 시대를 향해 달음질치고 있고, 앞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치열한 지식 경쟁에서 이겨 나가야 하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드는 작업은 확실히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이유에서도 대학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중하고도 단계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학 개혁과 그에 대한 그들의 노력은 대학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소나마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